

K-푸드 수출 136억 달러 돌파...농촌 기본소득·시농업도 '속도'

K-푸드+ 수출 역대 최대·농촌 인구 증가 효과 가시화 AI 농업·영농형 태양광 등 미래농업 정책도 본격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전북 순창군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의 농정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K-푸드 수출 확대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먹거리 물가 안정, 농촌 재생 및 AI 기반 미래농업 전환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K-푸드+ 수출은 136억3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K-푸드 수출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농산물 수출도 전년 대비 9% 증가했다.



▲농식품부 제공

올해도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1~4월 누적 K-푸드+ 수출액은 44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다. 특히 중동지역 수출은 해상물류 차질과 운임 상승 등 악조건 속에서도 37.6%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K-푸드 글로벌 확산을 위해 민관 합동 수출기획단을 중심으로 김치·전통주 등 전략품목을 육성하고, 차킨벨트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K-미식벨트'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싱가포르·베트남 등과 검역협상을 잇따라 타결하며 농축산물

수출시장 확대에도 성과를 냈다. 특히 싱가포르를 지난해 말 한국산 폐지고기 수입을 시작한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수입국으로 올라섰다.

농촌 활성화 정책도 본격화됐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 인구가 사업 전보다 4.7% 증가했고, 기본소득 사용 가맹점도 13.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전업한 인구 비율이 43%에 달해 지역소멸 대응

과 국가균형발전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순창군 풍산면에서는 주민자치협동조합이 모바일 농산물 장터와 이동장터 운영을 시작했고, 남해군에서는 주민들이 기본소득으로 지역 대파를 소비해 가격 폭락 위기를 극복한 사례도 소개됐다.

농식품부는 추경 예산 확보에 따라 6월 중 5개 군 내외를 추가 선정해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먹거리 물가 안정 정책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올해 4월 전체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2.6% 상승한 반면 농축산물 물가는 1.1% 하락하며 안정세를 유지했다.

농식품부는 가격 상승 품목에 대한 할인 지원과 수입 확대, 할당관세 적용 등을 병행하고, 가격 하락 품목은 수매·비축·수출 지원 등을 통해 수급 안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업·농촌의 미래 전환을 위한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3월 '농업·농촌 인공지능(AI) 대전환 전략'을 발표하고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5곳을 선정했다.

또 AI 기반 농업AX플랫폼 구축,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AI 수요응



▲농식품부 제공

답형 농촌버스, 농촌 폐기물 수거 로봇 개발 등 디지털 농업 기반 조성도 추진 중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법안 통과를 계기로 '햇빛 소득마을' 조성 사업도 본격화한다. 농식품부는 저수지·비축농지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을 발굴해 농촌 에너지 전환

모델을 확산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지

투기 근절과 데이터 기반 농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5월부터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도 착수했다. 추경 예산 588억 원과 최대 5000명의 조사 인력을 투입해 내년까지 농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K-푸드+ 수출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먹거리 물가 안정,

천원의 아침밥 등 먹거리 돌봄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농업·농촌의 미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aT, 방콕 국제식품박람회에서 K-푸드 위상 재확인

9720만불의 수출상담 성과 확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지난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방콕 국제식품박람회(THAIFEX-Anuga Asia 2026)'에 통합한국관으로 참가해 총 972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방콕 국제식품박람회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식품 전문 전시회로, 올해는 56개국 3590여 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12개 전시홀, 14만㎡ 규모로 개최됐다.

농식품부와 aT는 이번 박람회에 국내 우수 식품 수출업체 59개사를 지원해 태국과 아세

안 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K-푸드들을 선보였다.

특히 현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스트리트푸드와 음료류를 중심으로 전시관을 구성하고, 시식과 체험을 결합한 현장형 마케팅을 강화했다.

박람회 기간에는 한국 기업과 현지 바이어 간 교류를 위한 'K-푸드 나이트' 리셉션도 열렸다. 행사에는 양국 관계자와 주요 바이어들이 참석했으며, 전통주와 한식을 함께 소개해 K-푸드의 맛과 문화를 알리는 기회가 됐다.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도 큰 관심을 끌었다.

군고구마, 떡볶이, 어묵 등 한국식 길거리 음식 시식 행사

와 함께 참가 제품을 활용한 15분 요리대결, 쿠킹쇼 등을 진행하며 K-푸드의 다양한 활용법을 선보였다.

최근 K-콘텐츠 확산으로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진 가운데, 이번 박람회에서도 한국 식품에 대한 바이어들의 호응이 이어졌다.

참가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과 유통망 구축, 현지 판매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했으며, 비건단두와 녹차류, 소스류 제품은 현지 바이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

는 등 수출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

현지 바이어 파손 씨는 "한국 식품기업들은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어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네트워킹 리셉션 사진(주태국 대사 및 바이어)

농협하나로마트, 친환경 '종이봉투' 도입

농식품부와 함께 과채류 소비촉진 행사 진행

농협경제지주(농협경제대표 이사 김주양)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진행하는 과채류 소비촉진 행사에 비닐포장지 대체용 친환경 '종이봉투'를 시범 도입한다.

농협은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수도권 하나로마트 8개 매장에서 비닐봉투를 대체할 소포장용 종이봉투 약 15만 장을 고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비닐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수급 차질 장기화에 대비한 '비닐 포장재 사용 절감 캠페인'의 일환이다.

과채류 소비촉진 행사는 오이(백다다기), 애호박, 청양고추, 가지 등을 최대 26% 할인 판매한다. 특히 산지에서부터 개발

비닐 포장을 생략한 벌크 형태로 진열해 이번 캠페인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농협은 이번 시범 운영에서 ▲포장 비용 ▲포장성 및 저장성 ▲소비자 만족도 등 현장의 견을 수렴하고, 향후 종이봉투 활용 확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김주양 대표이사는 "이번 캠페인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비닐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농협은 대·내외적 변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가와 고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ktya0712@daum.net

행복한농산물, 함께하는KRC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7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